

# 중국불교 첫 편년사 찬술...후대 평가는 엇갈려

## <14> '역대삼보기'의 저자 비장방 거사

수(隋) 문제(文帝)의 통일 이후, 북방의 쇠락한 불교는 다시 흥성했다. 이사겸(李士謙) 거사와 유학자 왕통(王通) 등에 의해 불교는 유·도 양교와 함께 '삼교정립(三教鼎立)'의 틀을 갖췄다. 삼교정립이 있어도 스스로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고 칭할 만큼 불교를 신봉했던 황제가 문제였다.

문제는 불교부흥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불교부흥에 힘입어 서역(西域) 승려들이 다시 새로운 경전을 지니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서역 승려들이 중원을 드나들며 따라 다시 역경(譯經)사업이 일어났다.

역경 과정에서 주(周) 무제(武帝)의 폐불로 인한 경전 소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개황 15년(595) 문제는 조칙을 내려 역경승려들을 소집해 '중경법식(衆經法式)'을 개조했다. 이때 언종(彦琮) 등 역경승려들은 경전 목록 등을 작성해 황제에게 진상했다.

역경승려들은 경전의 '묘하고 정밀하며 그윽한

막한 전기만이 보인다.

거사는 복주시기 이미 출가했지만, 무제의 법난으로 환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속 후에도 거사 신분으로 계속 경전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찬술하고 있었음이 짐작된다.

<속고승전>권2 '달마급다전'에, 거사는 '역대 경전들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소실되고, 부처님 법이 시작되고 흥성한 연대가 사라져 알 수 없음을 탄식하고 <역대삼보기>를 찬술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찬술된 <역대삼보기>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역대삼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중국 역대 제왕 연표로서 주(周) 장왕(莊王) 10년(BC 687)부터 시작해 저자 당시인 개황 17년(597)에 이르기까지 왕조 변화를 논술한다(권1-3). 둘째는 대륙(代錄)으로 한대(漢代)부터 수대(隋代)에 이르기까지 불교전적 목록과 각 시대 역경가와 찬술자들의 전기(권4-12).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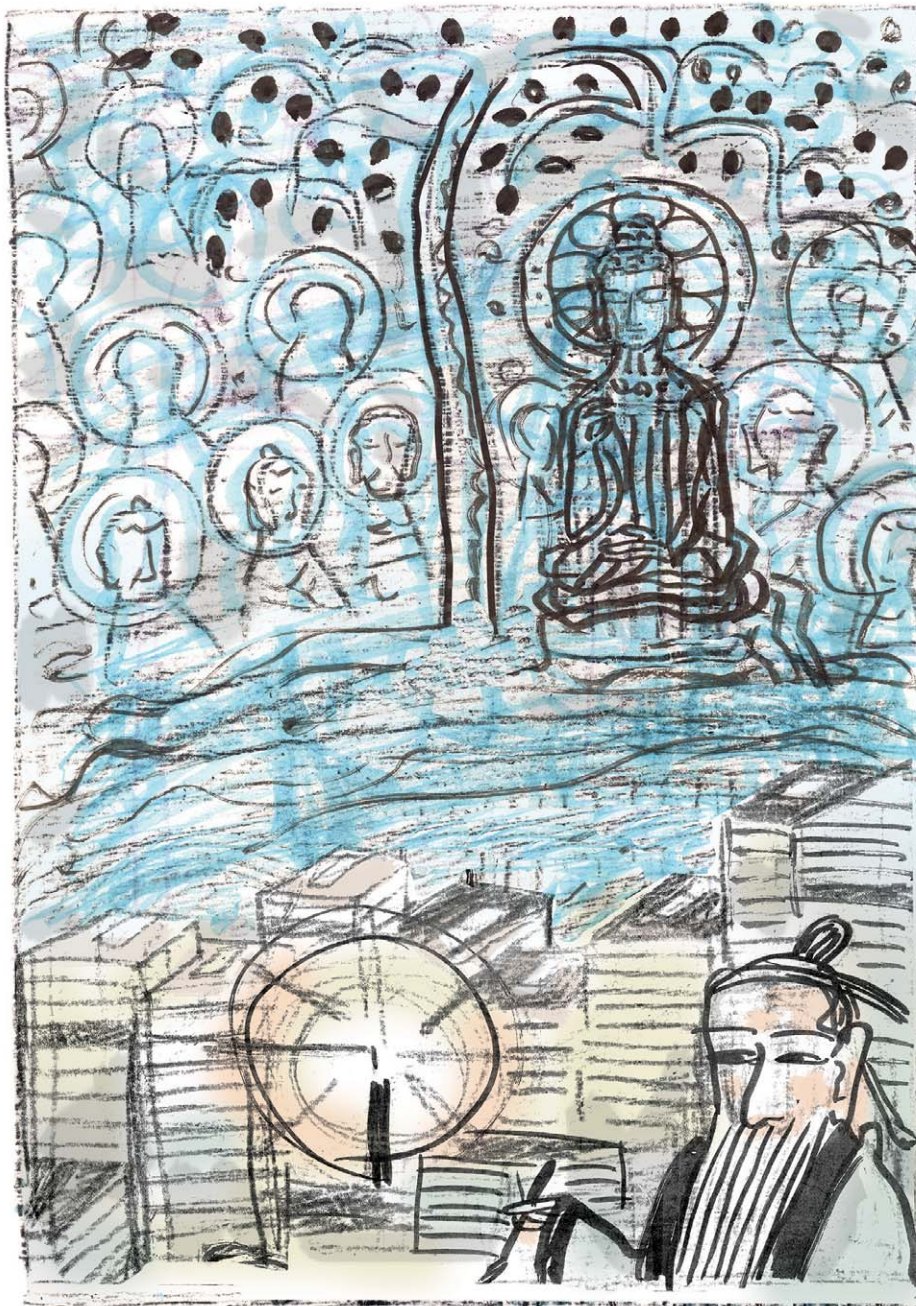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이런 점에서 거사의 <역대삼보기>를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은 "질그릇과 옥이 서로 어긋나 있다[瓦玉相謬]"고 비평했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은 "사실이 섞여 그릇돼 있다[事實雜謬]"고 비판했다. 근대 이후 불교사학이 발전하면서 <역대삼보기>는 오류투성이 저작으로 치부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역대삼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서구열강의 중국침탈에 맞서 불교를 중심으로 자강(自強)운동을 펼쳤던 양계초(梁啟超)이다.

양계초는 비장방 거사의 작품에 긍정적 평가를 했고, 중국 근대에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하고 불교사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를 이룬 탕용동(湯用彤) 선생도 "<역대삼보기>는 부처님의 행화와 함께 중국에 전래된 역사 및 역경(譯經)과 목록 및 저자의 간략한 전기를 언급했다. 이는 불교사에 있어서 편년(編年)의 시작을 알렸다"고 극찬했다.

이런 평가는 시대정신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녔으나, 중국불교사상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갖게 한다. "역사의 기술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잣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실제' '진실과 사실의 차이' '후대 전승과 역사적 사실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참다운 거사불교의 인물에 대한 논술을 어렵게 한다.

역대 유명한 불교사학자들이 비장방 거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근현대의 불교사 연구가 모두 거사의 저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쁜 평가였다 해서 거사의 <역대삼보기>는 무시되어도 좋을 것인가?

사상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진행된 평가는 부정적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어떤 특정한 시대에 출현한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현한 것이다.

그 사상을 참답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시대의 시대정신(Ethos)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결론에 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필자는 거사의 <역대삼보기>는 재조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장방 거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역사적 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역대삼보기>를 기술했을까? 제한된 필면에 <역대삼보기> 실례를 제시하며 반박할 수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역대삼보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관점은 학자적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에는 무엇보다 비장방 거사가 살았던 시대 상황(당시의 역사적 인식)과 비장방 거사의 개인적 경험(무제의 폐불로 인한 환속)을 모두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역대삼보기>는 귀중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고, 이것은 중국 거사불교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부처님 탄생부터 수대까지 사건 연대별로 정리 불교중심 기록·역사적 모순 등으로 부정적 평가

이치(妙精玄理)에 깊이 정통한 비장방(생멸연대 불명) 거사의 저술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거사를 추천했다. 황제는 조칙을 내려 거사를 수도로 불러 변경학사(翻經學士)로 임명했다(도선(道宣), <속고승전(續高僧傳)> 권2 '달마급다전(達摩多傳)' 참조). 비장방 거사는 수대(隋代) 대표적인 역경가로 활동했다. 거사가 <역대삼보기> 15권을 찬술한 것은 유명하다.

비장방 거사는 상당히 많은 역경에 참여했고 <역대삼보기>도 찬술했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대다수 거사전에 그의 전기도 남아 있지 않아 거사의 업적에 비하면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든다.

유일하게 <불법금광편(佛法金湯編)> 권6에 "비장방은 성도(成都)사람으로 처음에 사문(沙門)이었지만, 주 무제의 사태(沙汰)로 인해 환속했다. 수나라 건국 이후 역경사업에 참여해 개황 17년 변경학사가 되어 <역대삼보기> 15권을 상주했다"라는 아주 짧

게는 입장록(入藏錄)으로 대승과 소승으로 나눠 각 대장경에 편입된 전적을 기술하고 있다(권13-14). 넷째는 총서(總序)와 목록으로 본서의 찬술동기와 목적 등을 밝히고 있으며, 본서의 전체적인 세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권15). 이러한 전체적인 편제는 <역대삼보기>에서 불전 목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역대삼보기>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언급한다.

<역대삼보기>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불교의 중국 전래, 수대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연대기로 정리하는 편년체(編年體)로 쓰인 불교역사서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교사에 있어 최초의 일이고, 후대의 불교사 집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연대기 시작한 주 장왕 10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연도를 말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거사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

이 짐작된다.

특히 공자(孔子)나 노자(老子)의 활동시기 불교가 이미 널리 퍼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형성된 다양한 전설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짐작된다.

둘째, 중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불전 목록작업이 있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대(梁代)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이다. <출삼장기집>은 남조(南朝)를 중심으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 문헌이었지만, <역대삼보기>는 <출삼장기집>과 반대로 북조(北朝)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이런 점은 수조(隋朝)가 북조의 맥을 이었음을 반영

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 점은 <역대삼보기>가 왕조 배열을 진(晉)·송(宋)·제(齊)·양(梁)·주(周)·수(隋)의 순서로 한 것에서도 증명된다.

셋째, <역대삼보기> 전편에 흐르는 정신은 불교중심주의였다. 출가승려였던 비장방 거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편년체 역사기술의 근저에는 철저히 불교 효교적 입장에서 작성한 비장방 거사의 각오가 엿보인다.

예를 들어 불교와 유·도 양교의 논쟁을 기술함에 있어 불교의 우월성을 강조했고, 역사적 사실과 전설이 모순될 경우에도 불교에 유리한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대구
임태민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천
김기범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영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성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선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인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65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차기공사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익식	1969년생	172	고졸	운송업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현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충주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서준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경원도

[캠페인 PR]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